

# 목포~제주 해저터널 타당성 용역 재발주

### 전남도 “관광객 급증·이상 기후로 결항 빈발...여건 변화”

### 경제성 입증엔 내년 대선 공약·국가철도망 반영 요구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을 건설해 서울과 제주를 고속철도로 잇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남도가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타당성 용역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제주 관광객 급증, 이상기후에 의한 결항 빈발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용역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24일 “지난 23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 타당성 재검증 용역비’ 1억5000만원이 증액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예산으로 과거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의 용역을 중앙부처 연구기관이나 학회 등에 맡겨 재검증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개월간 서

울~제주 고속철도 타당성 용역을 진행, 고속철도 속도 및 노선에 따라 3가지 방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을 분석해 0.71~0.78이라는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B/C가 1.0 미만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에서는 2026년 제주도 관광객이 연간 1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2015년 제주도 관광객이 13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여건이 변화해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국물류학회, 한국문화산업학회 등 학계와 업계 등

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는 전남도는 이번 재검증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내년 대선 후보 공약 채택,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위원회는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원들과도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총 연장 167km(목포~해남 지상 66km·해남-보길도 교량 28km·해저터널 73km)로 건설기간 16년에 총 사업비 16조8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현성기자 chadol@kwangju.co.kr

## 부모 부양 책임 누가?...16년 전과 비교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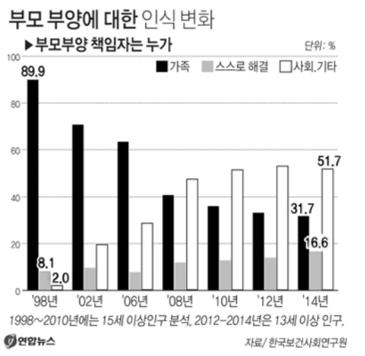
### 1998년 10명 중 9명 “가족이”

### 2014년 10명 중 5명 “사회가”

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생각이 지난 16년 동안 많이 줄어든 반면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효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주의가 약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김유경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부양의 책임자가 가족’이라는 인식은 1998년 조사 대상의 89.9%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 2014년에는 31.7%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사회 혹은 기타’에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1998년 2%에서 지난 2014년 51.7%로 높아졌다. 이 결과는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한 내용이다. 가족 중 부모부양 책임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장남에게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1998년 22.4%였지만 2014년에는 2%로 낮아졌으며, ‘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 역시 7%에서 1.1%로 줄었다. 대신 ‘자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15%에서 24.1%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이처럼 부양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달라진 원인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의 심화를 들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늘었고 반면 확대가족(3세대 이상 거주)은 그사이 12.5%에서 6.2%로 감소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75%에서 66.6%로 감소한 대신 사별·이혼 가구는 각각 14.8%에서 19%로 늘어나는 등 가족주의가 약화됐다. 자녀와 부모가 동거하는 비중은 1998년 49.2%에서 2014년 28.4%로 줄었다.

/김경민기자 kki@

### 이준규 주일대사 내정



유흥수 주일본 대사의 후임으로 이준규(62) 전(前) 주인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 정부 측에 이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일본 측의 아그레망 동의가 나오는 대로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현지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 출신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외시 12회로 1978년 외무부에 발을 들인 이후 38년을 근무한 직업 외교관이다.

일본 관련 직위로는 일본 쪽 경제협무를 담당하는 통상 1과장(1993년)과 주일본 참사관(1996년)을 역임했으며 1995년 일본 게이오대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연수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 농수산물 제외를” 24일 서울 중앙 우체국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안 공청회에서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운영위원이 토론회 발언을 하며 농수산물품목 법안 제외를 요구하자 축산업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역신문발전기금, 독립 기금으로 존치될 듯

#### 기재부 기금평가 결과 보고

통폐합 논란이 일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독립 기금으로 존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산하 기금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양성평등기금 등 24개 기금)와 자산운용평가(고용보험기금 등 44개 기금) 결과 등을 담은 ‘201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안은 기금평가단의 권고이자, 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기금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한 기금이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논란이 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협의 대상인 주무부처에서 반대하고 있고,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기금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언론을 고사시키기 위한 졸속 정책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 지역을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역에도 사람이 산다. 지역신문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언론을 대변하는 한 축”이라며 통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기금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돼 있던 시한을 2022년까지 연장한 것인데 법개정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국제대회 롤 모델’ 광주U대회 백서 발간

### 유치부터 개최까지 9년의 과정 담아

‘저비용 고효율’로 호평받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회종합백서가 발간됐다.

24일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유치부터 개최까지 9년 과정을 풀어쓴 ‘종합백서’, 대회 운영자를 위한 ‘부분별 운영결과 보고서’, 국제연맹 제출용인 영문판 ‘최종 보고서’ 등 3가지 보고서가 최근 책자와 이동식 메모리(USB) 형태로 제작됐다. 3종의 책자 분량은 총 4100여쪽에 달하

고, 9년간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5개 장, 470여 쪽 분량의 종합백서에는 지난 2007년 첫 유치 도전부터 재도전, 유치 성공, 대회 준비, 운영, 성공개최까지의 전 과정과 성과 및 평가 등이 실렸다.

자원봉사자, 시민, 선수, 미디어 등 참가자들의 인터뷰와 에피소드도 함께 소개됐다. 특히 광주 U대회의 역사적 순간을 담은 생생한 사진과 그래픽을 배경으로 한 ‘숫자로 보는 유니버시아드’가 눈길을 끈다.

또한, 대회가 남긴 유산과 성공 요인은 물론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실현할 수 있었던 ‘국제연맹과의 협상 에피소드’도 함께 실려있다. 모두 8권, 약 3100 쪽에 달하는 부분별 운영결과 보고서는 앞으로 국제대회를 앞둔 실무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조직위는 기대했다.

영문으로 제작된 460여 쪽 분량 최종 보고서는 유니버시아드 주최 기관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마지막 보고서다.

유니버시아드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지식전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작됐다. 조직위는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FISU 집행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를 연맹에 제출했으며 170여개 FISU 회원국에도 배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하

# 고

주식회사 대광건설 창업자이신 회장 조왕석(曹王錫)님께서 2016년 5월 24일 13시 50분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 발 빈 소  
지 인 소  
전 남 화 순 선 영

조 선 대 학 교 장 레 식 장 2 층 특 1 호  
2 0 1 6 년 5 월 26 일 (목) 오전 8 시

미 망 인  
자 조 안  
녀 조 안  
조 조 안  
조 조 안  
서 혜 영  
창 연 원  
우 희 영  
정 연 우  
범 정 연  
균 범 정  
아 욱 균  
민 아 욱  
원 민 아 욱

외 손녀  
외 손녀  
안 김  
지 지  
원 민

외 손녀  
외 손녀  
안 김  
지 지  
원 민

사 자  
위 부  
안 김  
동 동  
아 욱

손 손  
녀 자  
최 최  
종 종  
윤 윤  
다 다  
연 연  
창 창  
서 서  
혜 혜  
영 영  
원 원

손 손  
녀 자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창 창  
서 서  
혜 혜  
영 영  
원 원

녀 자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창 창  
서 서  
혜 혜  
영 영  
원 원

미 망 인  
자 조 안  
녀 조 안  
조 조 안  
조 조 안  
서 혜 영  
창 연 원  
우 희 영  
정 연 우  
범 정 연  
균 범 정  
아 욱 균  
민 아 욱

연락처(빈소) 조선대병원 장례예식장  
(062) 231-8901